

# 양양소식

2023. 4

Vol. 335

## CONTENTS

### 04 기획특집

오색케이블카,  
글로벌 명품 케이블카 만든다

### 08 함께 가는 길

양양군 치매안심센터

### 12 Story in 양양

3월에 만난 양양



# 선림원지 오르는 길

박여람

웅덩이 마다  
봄비가 연등을 띄우는 미천골

굽은 허리로 돌계단 오르는  
보랏빛 보살  
오체투지로 생을 건넌다

그녀의 마른 가슴에  
얼레지꽃 한 무더기 지고

석탑을 돌고 있는 산안개  
심장을 흔들며  
생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



박여람

2016년 등단  
산림문화회 회원  
강원문인협회 회원  
양양문인협회 회원

## C CONTENTS

### 희망양양

- 4 기획특집\_ 오색케이블카, 글로벌 명품 케이블카 만든다
- 8 함께 가는 길\_ 양양군 치매안심센터
- 12 Story in 양양\_ 3월에 만난 양양
- 15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나무 심기

### 의기양양

- 16 의정소식\_ 「제27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 18 향토사 이야기\_ 두 장의 독립선언서가 일으킨 양양만세운동
- 20 YANGYANG NEWS

### 열린양양

- 22 문화마당\_ 양양교육도서관 사서추천도서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4 건강알리미\_ 방역 관련 유충구제 및 내 혈관 지킴이 교실 안내
-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정보
- 28 공익광고\_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 COVER STORY



양양군 SNS 주소

-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yangyang>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yangyang\\_official](https://www.youtube.com/c/likeyyangyang_official)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양양소식 · 335호



| 발행일 2023년 4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http://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mailto: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 오색케이블카, 글로벌 명품 케이블카 만든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논의된 지 41년 만에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40년간 여러 번의 고비를 맞았지만 양양군과 군민 모두 7전 8기의 정신으로 곳곳이 헤쳐 온 결과일 것이다. 1982년부터 추진해 온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염원과 꿈이 이뤄지기까지 여러 고비의 지난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





## 군민과 함께 일군 기쁨과 감격

지난 2월 27일 강원도와 양양군이 40년간 추진해 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진하 양양군수,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 설치 허가에 '조건부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오늘, 강원도와 양양군이 40년간 추진해 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가장 큰 고비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저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강원도민, 특히 우리 양양군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김진태 지사의 브리핑에 이어 김진하 군수의 담화문 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여러 번 좌초 위기를 맞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사실상 허가됐다는 소식에 양양지역 주민들은 환호와 기쁨으로 가득 찬 날이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전국 곳곳을 누비며 시위와 집회, 삭발투쟁, 3번의 행정심판, 4번의 행정소송까지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의 끈질긴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 40년간 꺾이지 않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염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41년간 기다려온 양양군의 숙원사업이었다. 지난 1982년 처음으로 문화재청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신청했지만 불허됨으로써 계획은 바로 무산됐다.

이후 2010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삭도)의 거리를 2km에서 5km로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환경부는 법이 개정되자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을 정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설악산권(양양) 1곳을 포함해 7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는 1차 부결되었고 이듬해 노선을 변경해 신청했으나 연거푸 부결됐다.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2015년 환경부로부터 어렵게 조건부 승인을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했다. 당시만 해도 통과 될 것으로 기대가 컸다. 그러나 돌아온 건 '보완통보'였다. 이후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결국 양양군은 2019년 12월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년여의 심의 끝에 양양군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의 취소라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우여곡절 끝에 2022년 12월 28일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월 27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얻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최종 승인을 받았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기를 40년, 꺾이지 않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 국내 최초 내륙권 국립공원 케이블카, 연내 착공

지난 2010년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삭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이후, 내륙권으로는 최초로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연내 오색케이블카 착공에 들어가 2026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km의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인승 케이블카 53대가 가동될 예정으로 시간당 최대 825명을 수송해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93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을 두고 환경훼손 등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양양군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법정보호종 모니터링과 보호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 조사, 상부 정류장 구간 축소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성급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모든 국민이 아무런 장애 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남은 절차를 더욱 꼼꼼하게 챙기며 관련 부처와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며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시범사업에 걸맞은 글로벌 명품 케이블카로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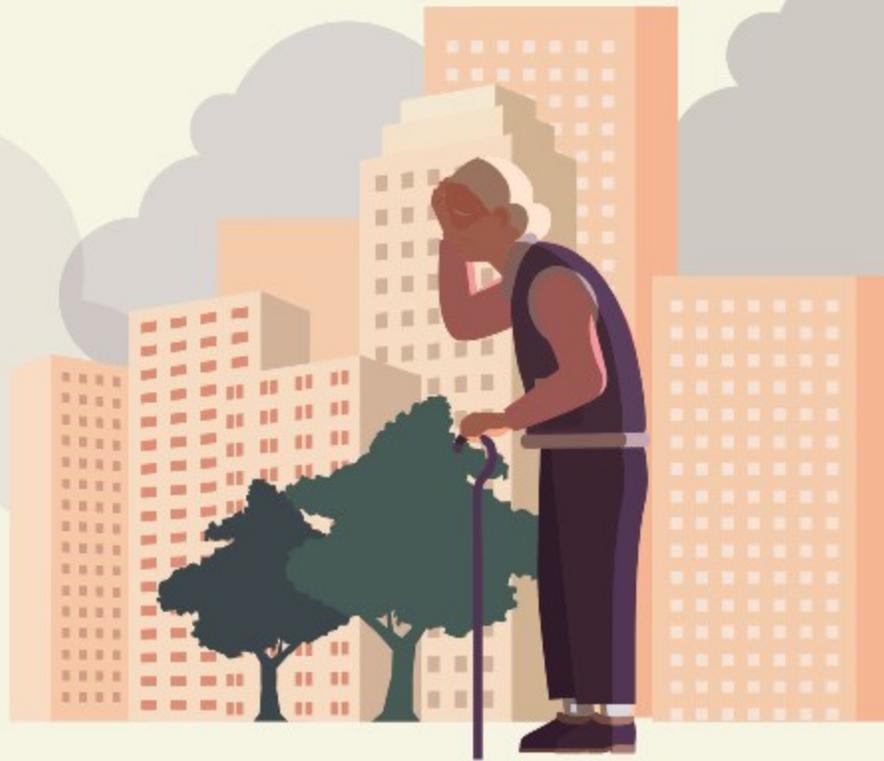
김진하 군수가 담화문에서 발표한 다짐대로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글로벌 명품 케이블카를 기대해본다.

〈글·사진 : 편집부〉



## 양양군 치매안심센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 수  
조기검진 통해 발견·관리해야  
지원서비스로 든든한 지역사회안전망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년의 대표 질병인 치매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추정 환자 수는 84만 명으로 추정되며, 치매유병률은 10.3%에 달했다. 65세 이상 인구 100명 당 10명이 치매로 추정된다는 뜻이다. 환자 본인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경험해야 하는 가족의 삶에도 치매는 혹독한 재난처럼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치매문제 해결을 위해 양양군은 2019년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초고령화 양양군 치매예방 관리 중요

양양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31.1%로(2021년 기준) 초고령화 사회에 해당하며, 전국 평균 17.1%, 강원도 평균 21.7%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독거노인가구비율 또한 16.4%로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양양군의 인구증감률 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젊은 층의 유입 또한 크지 않은 한 앞으로도 노인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곧,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양군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2019년 8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치매를 초기에 발견·관리하여 중증치매 진행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양양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3,997명으로 그 중 치매환자는 501명, 치매고위험군에 속하는 경도인지장애 121명, 인지저하 253명으로 나타났다(2022년 12월 기준). 연령이 높을수록 경도인지장애환자의 유병률도 높아지므로 치매로 이환되기 전 단계에서의 치매예방과 인지강화사업이 매우 높게 요구되고 있어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 대면이 어려운 가운데, 양양군 치매안심센터는 2,164명의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만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23%에 해당하는 2,834명을 치매조기검진 목표로 하고 있다.



### 양양군 치매안심센터

- 치매조기검진
- 치매예방교실
- 치매환자쉼터
- 인지강화교실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안심가맹점

참여자 모집 중

☎033-670-2937







## 예방 관리가 중요한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예방교실

양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및 치매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하고 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경우, 치매환자는 건강한 상태를 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어 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치매 고위험군에는 1년 주기로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보호자에게도 돌봄에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고 제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지저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의 우울감을 줄이고 인지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AI 돌봄로봇을 지원해 원격으로 식사, 약복용, 체조시간 등의 건강생활을 관리하고, 실시간 활동 체크를 감지하여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도 지원한다.

평소 치매발생 위험 요인과 위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관리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 특성상 농간기에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치매예방교실을 통해 치매예방수칙과 운동법, 치매체크앱을 안내하고, 치매파트너 교육을 운영한다.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등 치매 고위험군으로 진단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두근두근 뇌운동, 인지강화, 원예, 음악, 미술,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치매발병 가능성을 줄이고 발병 시기를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치매환자와 보호자 가까이

###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컬러링북과 색연필 등의 인지재활용품과 미끄럼방지 양말, 약보관함, 기저귀, 물티슈, 방수매트 등의 조호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증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나 대기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 쉼터도 운영하고 있다. 운동치료, 인지훈련치료, 회상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등 프로그램을 오후 3시간씩 운영하여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가족교실 운영, 자조모임 지원,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치매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를 높이고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치매는 진단을 받고 치료 관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효과가 있기에 치매안심센터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꼼꼼하게 알아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면과 현북면 보건지소에서 각각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해 주2일 하루 4시간씩 운영 중이다.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치매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퇴원 치매환자의 적절한 등록 관리 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치매친화적 사회안전망 조성

우리는 누구나 나이 들고, 어찌면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면 치매는 두렵기 만한 대상이 아니다. 치매가 있어도 살던 곳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양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마을 구성원 모두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치매 친화마을이다. 주민 관심도가 높은 서면 수상리와 현북면 하광정리를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해 운영 중이며, 60세 이상 마을 주민 전수 치매조기검진을 시행하고, 치매인식개선 교육, 치매예방교실과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단체와 개인사업자라면 치매극복선도단체 또는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구성원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안심센터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며, 배회 어르신 임시 보호 및 신속한 신고,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등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관심있는 단체와 개인사업자는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동참해 보자.

(글·사진: 편집부)

3월에 만난 양양

반가운 계절이 돌아왔다.

양양에서 '봄을 찾기'

'봄'이라는 단어를 소리 내어 읽어 보면, 마치 잔뜩 움츠렸던 꽃망울이 상큼하게 터지는 소리처럼 들린다. 봄은 멈춰 있던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절이라 더욱 반갑다. 그동안 코로나의 여파로 봄다운 봄을 만끽하지 못한 채 몇 해를 보냈었는데, 올해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 계절을 환영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한껏 긴장했던 어깨가 느슨해지면서 한바탕 기지개라도 켜고 싶어진다.

지난 3월에 만난 양양도 봄기운에 모처럼 활기가 넘쳤다. 아기 연어 보내기 체험축제와 함께 봄맞이 비치 마켓이 열렸고, 거기에 오일장까지 더해 겨우내 답답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안겨 주었다. 사람들은 양양에서 저마다의 '봄'을 찾고, '보물' 같은 시간을 선물 받았다.





## 아기 연어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설레는 새 학기를 맞이하던 날, 양양에서도 아기 연어들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양양군 다목적광장과 남대천 일원에서 펼쳐진 '2023 아기 연어 보내기 체험축제'를 통해 10만 마리 정도의 아기 연어들이 남대천에 방류되어 긴 여정을 떠날 준비를 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양양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아기 연어 보내기 체험축제'는 연어의 가치와 생태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아기 연어를 방류함으로써 연어 자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

3일 동안 총 10회차로 운영된 이번 체험축제는 회차마다 아기 연어 방류 용기 꾸미기와 연어를 소재로 만든 애니메이션 관람, 아기 연어 먹이 주기와 방류체험 등의 순서로 약 60분간 진행되었다. 참가 신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온라인 예약은 오픈과 동시에 금세 마감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행사 기간 내내 양양전통시장과 남대천 둔치 사이에 자리한 다목적광장은 아기 연어의 새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였다. 주로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주민 또는 관광객들이었다. 참가자들은 행사장 안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색색의 펜과 스티커를 활용해 방류 용기를 꾸미느라 여념이 없었다. 방류 용기는 친환경 생분해 제품을 사용해 환경을 생각하는 행사의 취지에도 잘 맞는 아이템이었다.

방류 용기 꾸미기를 마친 후에 애니메이션까지 감상한 참가자들은 행사 관계자들의 인솔하에 방류체험이 진행되는 수로까지 단체로 이동했다. 이제 곧 아기 연어를 만나러 갈 생각에 모두 들뜬 걸음이었다.



### 건강하게 돌아오렴, 아기 연어야!

다목적광장에서 남대천 둔치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 수로 입구에 놓인 커다란 수조가 눈에 띄었다. 지난해 말 산란기를 맞아 모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에서 채란해 사육한 아기 연어들이 수조 안에서 발랄하게 헤엄치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차례로 각자의 방류 용기에 아기 연어들을 담고, 물고기 먹이도 배분받아 수로 옆에 줄지어 자리를 잡았다. 본격적인 방류 행사는 관계자들의 신호에 맞춰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참가자들은 아기 연어들에게 먹이도 주고, 기념 촬영을 하면서 신호를 기다렸다. 아예 방류 용기에 코를 박고 아기 연어들을 구경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무척 귀여웠다. 드디어 아기 연어들을 보내줄 시간. 물고기들을 수로에 놓아주는 참가자들의 얼굴에도 설렘이 감돌았다.

이제 아기 연어들은 30~50일간 하천에서 머물다가 바다로 이동하여 북태평양에서 2~4년 성장한 후에 산란을 위해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수로 안에서 무리 지어 헤엄치는 아기 연어들을 보고 있자니, 부디 건강하게 자라 무사히 회귀했으면 하는 응원의 마음이 절로 일었다. 이번 '아기 연어 보내기 체험축제'는 단순한 치어 방류 행사의 의미를 넘어 친환경, 친자연 생태체험을 지향하는 지역의 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양양문화재단에서는 생태교육과 체험, 관람이 공존하는 다양한 축제를 연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안겨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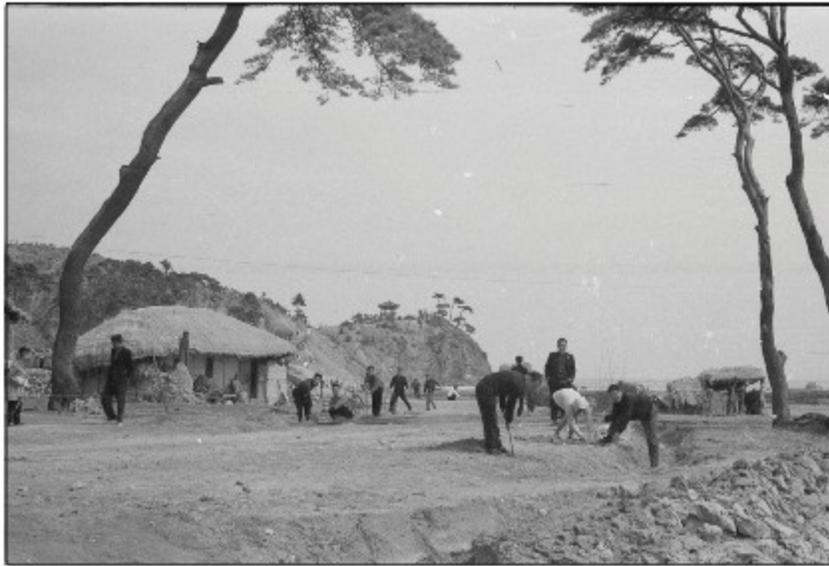
### 봄날이라 더욱 즐거운 시장 구경

'2023 아기 연어 보내기 체험축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양양비치마켓'도 함께 펼쳐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했다. 매일 둘째 주 주말에 후진항에서 열리던 양양비치마켓이 이번에는 '아기 연어 보내기 체험축제'에 맞춰 바다가 아닌 남대천 옆으로 잠깐 자리를 옮긴 것이다. 개성 만점 셀러들이 참여해 로컬의 색깔이 담긴 다양한 제품들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 이번 양양비치마켓은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두 배로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특히 아기 연어 보내기 체험축제를 맞아 '나무로 물고기 만들기', '연어 그리기', '물고기 인형 만들기' 등의 체험들이 진행돼 아기 연어를 보내고 난 뒤의 아쉬움을 달래 주었다.

행사 둘째 날인 3월 4일에는 양양 오일장까지 열려 남대천 일대가 더욱 활기를 띠었다. 비치마켓 현장에서 조금 벗어났을 뿐인데 눈앞에 정겨운 오일장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유독 봄나물과 소담스러운 꽃 화분들, 묘목들에 눈길이 갔다. 나도 모르게 자꾸 '봄'의 흔적을 찾고 있었나 보다. 우연히 장터에서 지인을 만나 반가워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도 봄이 깃들었다. 아무렇지 않게 곳곳에 봄이 내려앉고 있었다. 3월의 양양은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앞으로 이곳에서 더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라는 듯이 어디선가 봄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글·사진: 편집부)

##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1968년 뱃나무 식수 (강현면 전진리)



2022년 탄소중립 숲 나무심기 (현남면 광진리)



# 의정소식



## 「제27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운영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오세만의장 대표발의

##### 제정이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비대면 방식의 정보통신기술과 기기를 활용하여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주민의 복지 및 보건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봉균의원 대표발의

##### 제정이유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여 지역 내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상품을 거래함으로써 상품의 판로 개척 및 판매 촉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시장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이종석의원 대표발의

##### 제정이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의원 대표발의

제정이유

청년의 창업을 육성하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재창업 활동을 촉진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오세만 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양양군의회 오세만 의장은 지난 2월 20일,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회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5회 대한민국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지방의정봉사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권위 있는 상이다.

오세만 의장은 “군민을 대표해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함께 협력해 주시는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두 장의 독립선언서가 일으킨 양양만세운동

삼일만세운동에서 유림은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양양만세운동은 유림이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이석범은 대한제국 중추원 의관(議官)을 지내다 일제강점 후 낙향한 유림으로 1919년 고종의 장례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한다.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전 시민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며 고향에 가서 만세 부를 결심을 하고 독립선언서 한 장을 구해 돌아온다. 전에 그는 동학군을 진압할 정도로 왕권중심 신분제를 고수하던 수구성향의 인물이었으나 만세운동의 동지로 민중들을 규합한다.

다른 한 장은 유학을 떠났던 여학생 조화벽이 전한다. 조화벽은 양양감리교회의 전도인이었던 조영순의 무남독녀로 16세에 원산을 거쳐 개성의 호수돈여학교로 옮겨 공부한다. 개성만세운동 시 호수돈여고 비밀결사요원으로 활약하는데 휴교령이 내리자 버선목에 독립선언서를 감추고 원산으로 가 배를 타고 대포항을 통해 고향으로 온다.

이 독립선언서가 양양감리교회 김영학 목사에게 전해지고 조화벽 부녀와 청년부가 중심이 되어 거사를 준비한다.

## 만세운동으로 하나가 된 양양사람들

귀향한 이석범은 일제침략 후 거세지는 개화바람에 맞서 유교사상과 문화를 계승하고자 쌍천서숙을 세워 후학을 가르쳤는데 이곳 출신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한다. 그들은 마을 구장 등 리더십이 있는 자에게 만세운동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포섭하여 하부조직을 구축한다.

당시 양양에는 양양감리교회 이외에도 물치교회와 상광정교회가 있었는데 김영학 목사는 이들 교회를 순회하며 목회하였고 예배 때마다 민족주의적 애국사상을 설교하여 신교육을 받은 젊은 신도들로부터 호응을 얻는다. 양양면사무소 급사였던 교인 김필선을 주축으로 양양보통학교 졸업생들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고 젊은이들을 모은다.

유림세력과 신문화세력은 각자 운동을 준비하다가 양양보통학교 제1회 졸업생 최인식을 매개로 힘을 합치게 된다. 동학운동의 후예와 동학을 탄압했던 이들이 하나가 되고 유림과 신문화 세력이 융화되며 유교와 기독교가 하나의 용광로에서 끓게 된다.



### 일본경찰을 궁지에 몰았던 양양인의 기개

4월 4일을 거사일로 잡고 준비하던 중 거사 하루 전에 발각되어 이석범 등 주모자들이 잡혀가지만 탄탄한 조직력에 착오 없이 진행된다.

양양장날인 4월 4일, 만세꾼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싸전으로 향했다. 오일장이 폐쇄된 줄 모르고 장에 온 사람들도 시위에 합세한 가운데 김영학 목사는 강점의 부당함과 독립의 정당성을 연설한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서로 달려가 잡아간 이석범 등을 석방하라고 요구한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함흥기와 권병연 등이 거칠게 항의하다가 왜경의 칼에 베여 죽임을 당한다.



함흥기·권병연 열사 및 추모비

잡혀간 이석범의 동생 이국범과 아들 이재훈은 4월 5일 물치장날 주민들을 인솔하여 대포리 경찰주재소로 몰려갔는데 시위대의 기세에 눌린 경찰은 무대책이었고 일본 민간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가기에 이른다. 4월 6일, 김학구의 장례행렬이 서면사무소를 습격하는 등 시위가 확대되자 왜경서장은 “물러갈 테니 조용히 만세만 부르고 해산하라”고 애걸한다.

하지만 6일간이나 지속되었던 양양만세운동도 증강된 일제의 총칼 앞에 막을 내리고 만다. 연인원 15,000여명이 참여하고 12명이 순국하고 73명이 투옥되었으며 78명이 중상을 입었고 1,230명이 태형을 당했다.



### 유관순의 울케, 조화벽 지사를 아시나요

운동 후 조화벽은 체포망을 피해 객지를 떠돌다 개성으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고 공주에서 교편을 잡는다. 이때 아우내만세운동에서 부모를 잃은 유관순의 두 남동생을 보살피고 오빠 유우석의 옥바라지도 하였는데 네 살 아래인 항일반공주의자이자 아나키스트 유우석의 청혼에 응하게 된다.



[출처 : 국립여성사전시관]

조화벽 지사 가족 : 뒤 왼쪽부터 류재충, 조카 재환, 김경애, 앞 왼쪽부터 손자 덕상, 조화벽 지사

결혼 후 개성과 원산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기독교청년회 등 사회활동을 하다가 남편이 해외로 망명하자 양양으로 돌아와 정명학원을 운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을 기회를 준다.

해방 후 양양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남편을 따라 서울로 이주하는데 이때부터 조화벽은 서서히 양양에서 잊힌다. 남편과 세 아들을 잃고 살던 그녀는 1975년 서거하였는데 1990년 큰며느리 김정애의 노력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조화벽의 애국애향활동이 알려지면서 우리가 그녀 곁으로 조금 다가갔다. 유관순만큼 조화벽을 추모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QR코드 : 한상호 시인의 시 <남대천이 잘 부끄럽습니다> 동영상)

(글·사진 : 양양문화원)



**양양군립도서관 건립 추진**

**양양군립도서관 건립 추진**

주민들의 정보·교육·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양양군립도서관을 건립한다. 군립 도서관의 사업비는 약60억 원(도비 35, 군비 25)으로, 월리 산24번지(양양소방서 인근)일원에 부지면적 3,838㎡, 연면적1,500㎡, 지상 2층 규모다.

도서관에는 △학습실 △다목적실 △강의실 △동아리실 △휴게공간 △북카페 등이 들어서, 수준 높은 도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책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하며 힐링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스마트 관광도시 증강현실(AR) 게임 개발 착수**

**스마트 관광도시 증강현실(AR) 게임 개발 착수**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와 배경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더해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로 '포켓몬 GO' 게임이 대표적인 증강현실 게임이다. 요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 가지 스마트 경험 및 편의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관광 앱 '고고양양'이 6월 1일 출시예정이며 관광객들은 앱 다운로드 후 주요 관광지에서 AR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스마트관광 앱과 연계·개발되는 증강현실 게임은 지역의 주요 관광지의 특색을 살린 미니게임 방식으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관광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강원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최우수 기관' 선정**

**강원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최우수 기관' 선정**

"2022회계연도 강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최우수 기관'에 선정 되었다. 매년 18개 시·군에 대하여 전(前)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4개 항목(징수실적, 결손실적, 체납액증감, 채권확보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징수율 84.6%, 세외수입 징수율 55.5%로 강원도 내 체납액 정리 순위 1위라는 큰 성과를 거양하였다.



**2023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지정**

### 2023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평생학습기반 구축을 위해 매년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평생학습도시 선정 평가 결과, 신규로 양양군을 포함하여 7개 도시가 선정되었다.

군은 그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위해 2021년 10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양양군 평생학습의 도약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였다. 양양군의회도 지난해 9월,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힘을 보탰다.



**양양군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추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추진**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추진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등의 시설물이다.

군은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주소정보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시설물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확한 도로명주소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6월까지 주소정보 시설물의 훼손 여부, 설치상태의 안전 여부, 손·망실된 시설물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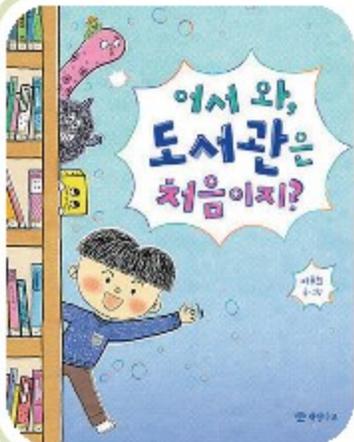
**올 상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7억 투입**

### 올 상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7억 투입

양양군이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약 37억 원을 투입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이달 중 각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약 150건에 대해 설계 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 안길 및 진입도로 정비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소교량 정비 등으로, 농업이 주를 이루는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높은 사업이므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 양양교육도서관 사서추천도서



## 어서와, 도서관은 처음이지?

저자 : 이주희 글·그림

발행처 : 개암나무 / 발행년 : 2022 / 청구기호 : 아 813.8-이760 / 자료위치 : [양양]아동열람실  
《어서와, 도서관은 처음이지?》는 도서관을 낯설어하던 아이가 도서관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 가는 과정을 그린 그림책입니다. 주인공 도은이는 도서관에 가면 심심하고 따분할 것 같고, 조금이라도 떠들면 책 괴물이 잡아갈 것 같다는 상상을 하며 도서관을 멀리합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도서관에 열리는 원화 전시를 보러 가고, 그곳에서 《노랑이의 대단한 도서관 탐험기》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이 책은 도서 반납함에 남겨진 도서관 장서 '노랑이'가 어린이 자료실 서가에 있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  
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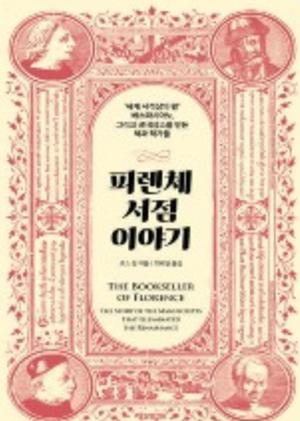
##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날까?

저자 : 황효진 지음

발행처 : 창비 / 발행년 : 2023 / 구기호 : 199.5-황950 / 자료위치 : [양양]종합자료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가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고민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날까?》는 진로, 재능, 우정, 사랑, 가족, 돈 등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스스로 고민하여 가졌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한다. 일상의 미묘한 감정들을 포착해내는 황효진 작가의 글은 어른이 된다고 해서 이 막막한 고민들이 저절로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당장의 고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상처난 마음을 돌보고 내일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으라고 살짝 등을 밀어주는 듯하다.

청  
소  
년



## 피렌체 서점 이야기

저자 : 로스 킹 지음 (최파일 옮김)

발행처 : 책과함께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013.33-킹295ㅍ / 자료위치 : [양양]종합자료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브루넬레스키의 돔》의 작가 로스 킹이 15세기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지식 파수꾼들의 이야기를 통해 르네상스의 탄생과 부흥을 추적한다. 책 사냥꾼, 학자, 필경사, 채식사, 서적상은 르네상스기 지식 혁명의 최전선에 있었다. 그리고 이들 활동의 중심에는 '세계 서적상의 왕' 베스파시아노가 있었다. 그의 서점은 인문주의자들의 토론과 만남의 장이 되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을 비롯한 15세기 유럽의 정치적·종교적 혼란과, 필사본에서 인쇄본으로의 이행이라는 지적 격동을 유려하게 엮어낸 이 책에는 책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흥미를 느낄 만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일  
반

양양작은영화관  
상영예정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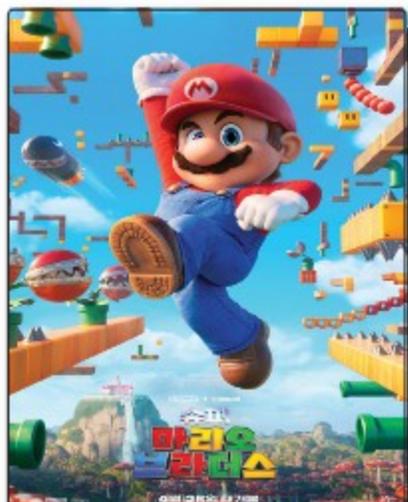
리바운드



존 워4



드림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65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https://yangyang.scinema.org> ☎033-673-7050

모기 유충 1마리를 잡으면

700마리  
잡는 효과!



모기 퇴치! 서식지를 없애야 합니다!!

- ◆ 모기유충 1마리를 구제하면 성충모기 700마리 구제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조사가 있을 만큼 방역효과가 뛰어납니다.
- ◆ 각 가정에서 작은 실천으로 모기 없는 마을을 만드는데 동참해주시요.

## 모기유충 서식지 제거

1.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장소인 물웅덩이, 페타이어, 물통, 고인물 등은 제거합니다.
2. 정화조, 하수구 등은 약품을 사용해서 유충을 박멸합니다.



모기유충(장구벌레)

서식처 (물통, 웅덩이, 정화조 등)

※모기유충 약품은 양양군보건소에서 상시 배부 합니다  
(문의: ☎033-670-2536)



양양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2023년도 「내 혈관 지킴이 교실」 운영

2021.09.0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 9대 생활수칙

담배는 반드시 끊기	음식 섭취에 연두만 이러도록 하기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먹을만 운동 하기	적당 체중과 리듬대로 유지하기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움 마음대로 생활하기
혈기(혈압)를 잘 관리 하고, 콜레스테롤 측정하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꾸준히 치료받기	뇌졸중, 심근경색의 응급 응급을 유기하고 발생 즉시 병원가기

※음식 21종은 안주(채), 3개(채)는 양파, 3개(채)는 사과, 3개(채)는 오렌지, 3개(채)는 사과  
※운동 21종은 안주(채), 3개(채)는 양파, 3개(채)는 사과, 3개(채)는 오렌지, 3개(채)는 사과

### 일 정

구분	교육내용	대상
3월	고혈압 이론교육/영양관리/심폐소생술 교육	일반주민
4월	당뇨병 이론교육/영양관리/심폐소생술 교육	일반주민
5월	이상지질혈증 이론교육/영양관리/심폐소생술 교육	일반주민
6월	고혈압 이론교육/영양·관리/구강교육/심폐소생술 교육	고혈압 질환자
7월	당뇨병 이론교육/영양·관리/구강교육/심폐소생술 교육	당뇨 질환자

■ 장 소 : 양양군 보건소 다목적실(2층)

■ 대 상 : 고혈압·당뇨 질환자 및  
관심있는 지역주민

■ 교육내용 :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교육, 식이관리 신체활동(운동  
법), 심폐소생술 실습 및 교육

■ 참여혜택 : 무료 골다공증검사  
또는 혈액검사 등

※교육문의 : ☎ 033-670-2543

양양군 보건소

### 양양소식지 일자리정보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남양인더스트리	1명	건축자재생산직	08:00~17:30(주5일)	월201만원
초원환경산업(☞)	1명	굴삭기운전원	08:00~18:00(주5일)	월270만원
인항재가 노인복지센터	1명	재가요양보호사	시간협의	시급12,700원
☞에이티에스(양양국제공항)	10명	지상조업	스케줄근무	월215만원
	5명	항공기 기내청소원	스케줄근무	월270만원
매홍엘엔에프	2명	식품생산직	06:00~15:00,13:00~22:00	월201만원
	1명	식품제조 기계조작원	교대근무	월230만원
제이에이저글로빌(센텀마크호텔)	1명	기계 설비 유지보수 (산업기사자격증소지자)	교대근무	연3,000만원
한양수자인아파트	1명	아파트 전기과장(선임가능자)	09:00~18:00(주5일)	월356만원
주식회사 은진(브리드호텔)	1명	설비 유지보수원	교대근무	월285만원
☞월드와이드 서비스코리아	1명	기계시설 유지보수원	적일근무	월243만원
KAC공항서비스(☞) (양양국제공항)	4명	기계시설 유지보수원(기간제)	1일 8시간	월224만원 이상
소노에스테이트서비스 (솔비치)	5명	객실청소원	09:00~18:00(주5일)	월210만원
	2명	하우스맨(객실관리)	09:00~18:00(주5일)	월230만원
	2명	공용관리(건물내 유지·관리)	09:00~18:00(주5일)	월230만원
	2명	렌츨리(기물세척 및 관리)	09:00~18:00(주5일)	월210만원
☞가온건설산업	2명	토목시공기술자(5년이상 경력자)	07:00~17:00	연5,000만원 이상 (협의)
☞한화 (수리공력발전단지)	1명	품질관리자(토목자격증소지자)	07:00~17:30(주5일)	연4,000만원 이상
	1명	청소원	07:00~11:30	월105만원(협의)

### 2023년 군민정보화교육 일정안내 (2차)

회차	월별	기간	접수기간	수강내용
2차	5월	5.2. ~ 5.25.	2차접수 4.17. ~ 4.21. (3개월 교육)	(주간반) ●엑셀 입문반 (엑셀의 기본과정) ●엑셀 실전문 (엑셀의 자동화문서) ●파워포인트 입문반(파워포인트 기본과정) ●스마트폰 활용(파일 전송&엑셀 앱 활용)  (야간반) ●TQ한글, 엑셀(강의 및 실습 병행) ●컴퓨터활용능력(강의 및 실습 병행)
	6월	5.29. ~ 6.29.		
	7월	7.3. ~ 7.27.		

- 교육장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제1교실)
- 교육인원 : 각반12명(선착순)
- 교육시간 : (주간반) 10:00~12:00(화,목) / (야간반) 18:30~20:30(월,수,목)
- 신청방법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033-670-2116)
- \*교육일정 및 수강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더 건강해지는  
건강보험 이야기**

“2023년 건강보험 제도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 달라지는 제도



장기요양보험은 이렇게 더! 좋아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 및 추가 인상**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인력 운영비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0.8577% → 0.9082%)과 추가(평균 4.70% ↑)가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 비용		
구분	평균	시상지역	재기지역	
보험료	4.70%	4.55%	4.81%	
0.0505%p 인상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		

반경이되며, 이제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총 급여에 비용이 249만 2,500원이 되며,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은 이금액의 20%인 49만 5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또한 주야간보호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2만 7,000원~21만 2,300원까지 증액됩니다. 이 외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횟수 확대, 가족요양비 인상 등 다양한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시설급여) 1등급 기준 월 최대 **11,750원** (90일간 급여비용 최대 24,922,5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2만 7,000원~21만 2,300원)
- (중증수급자 방문요양급여) 8시간 연속 서비스 이용횟수 변경(4회 → 6회)
- (가족요양비) 인상(월 15만원 → 월 22만 3,000원)

장기요양보험은 이렇게 더! 좋아집니다.

**차이가족유가제 확대**

차이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급하게 이용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공단에 차이가족유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도가 확대되어 연간 **최대 20주**까지 단기보호 또는 중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간 0월16.50시간에서 연간 9월16.50시간으로 확대

단기보호	중일 방문요양
1~5등급, 인지 지원등급을 대상으로 후속보호센터에서 차대원자를 돌봄 제공하는 서비스	1, 2등급을 대상으로 침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서비스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Gangwon Forestry Exhibition

2023.09.22(금)~10.22(일)

★주행사장: 강원도 세계잰베리 수련장 (고성군 도성면 인룡리 일원)

★부행사장: ● 고성군 - DMZ박물관  
✦ 속초시 - 자생식물원  
▽ 양양군 - 송이밸리자연휴양림  
▲ 인제군 - 만해마을

**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주인의 신고 요청에 맞추어 신고하면 관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호동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신규정규 구간

주 정차 금지(연간주차 제외) 정문 앞 도로기 다른 과태료 부과 정차 구간

주 정차 금지 안전표지 (규기 표지(노면표지))



**소화전 주변 5m**

주 정차 금지(연간주차 제외) (노면표지) 설치 소화전 및 대피장기 설치



**교차로 모퉁이 5m**

주 정차 금지(연간주차 제외) (노면표지) 설치 교차로 기점이나 도로 모퉁이에 정차금지



**버스 정류소 10m**

연속 정차 금지 또는 노면표지 기준 10m 이내 정차 금지



**합판 보도**

합판도 위나 합판을 이용해 정차 금지



- ▶ 신고할 수 있는
  - ▶ 시간 초과 정차
  - ▶ 합판도 위나 합판 표지 등에 정차
  - ▶ 횡단보도 횡단표지 설치 구역에 정차
  - ▶ 도로에 과잉 주차 신고는 신고서 작성 시에 보호구역에 확인해야 함
- ▶ 신고방법
  - ▶ 112로 신고
  - ▶ 112로 신고: 112로 신고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김제저

# 태어나면 1살? 아니야! 0살!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우리 이제 만 나이를 사용해요!

18세, 65세, 35세, 1세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해요!

『행정기본법』·『민법』 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말살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여 권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신임하여 만(歲)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가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신임하여 만(歲)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나이로 통일] 기반 마련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벤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ex. (2023) - (1992) - 1 = 30세

올해 생일부터  
이벤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ex. (2023) - (1992) = 31세

'만 나이 계산기'로 나이를 손쉽게 확인해요

만 나이 계산기(생일 1992년 07월 09일)	만 나이 계산기(생일 1992년 06월 28일)
연도: 1978. 07. 09	연도: 1978. 06. 28
기온도: 2023. 06. 28	기온도: 2023. 06. 28
44세	45세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김제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표기된 나이로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30세 = 만 30세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서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협의, 논의, 합의 사항이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제153조(선거권)  
1.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출생년월일 정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한 것에 한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2023년 6월 11일

# 강원 특별 자치도 출범



## 특별자치도란?



대한민국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지역  
제주특별자치도(2006)와 세종특별자치시(2012)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6월 11일 새롭게 출범합니다.

## 특별자치도가 되면 좋은점?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그 지역에 맞는 특례들이 반영되어,  
지역 스스로의 계획하에 주도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고,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등  
도민의 삶이 살기 좋게 변화되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가 필요한 이유?

### 강원특별법 제1조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산림, 환경, 군사, 농업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 및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  
여려움을 겪어 도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렇게 각종 규제로  
공통 묶여버린 강원도는  
지역발전의 기회를  
잃어 버렸...

## 강원도가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강원도의 자연과 환경 가치를 보존하고  
각종 규제의 허파를 통해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머무르고,  
도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번영의 땅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달라지는 점

### 강원특별자치도

-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조직체계 및 운영
- 권한과 사무를 이양받아 일반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형·재정 시스템 운영
-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도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종합 행정 실현
- 강원도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규제완화로 맞춤형 발전 및 지역 자생력 확보
- 자율적인 정책결정과 책임 아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이양
- 강원도민이 강원도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높아지는 권한 확보

## 강원특별자치도란?

도민이 원하는 "특별한 자치를 하는 것"  
경제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강원도 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

"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만들어가는"  
강원특별자치도